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⑦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198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보사, 서악사, 연미사 주지를 지냈으며 제15·16·17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고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자연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다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천년을 버텨온 고목도, 정갈하게 앉은 기와도 한순간의 화마(火魔) 앞에서는 속절없었다. 지난해 3월, 경북 북부를 삼킨 산불은 고운사 사찰림의 97%를 앗아갔고, 보물급 전각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고운사는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운사가 선택한 길은 '인위'가 아닌 '순리'다. 억지로 나무를 심는 대신 자연의 회복력을 믿는 '자연 복원'을 택했고, 전각도 과거의 복제가 아닌 현대인의 삶을 담아내는 방식의 복원을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고운사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듣기 위해 본지 한명우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9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만났다.

Q 2020년부터 교구장 소임을 맡아 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교구본사를 이끌며 느끼신 변화와 소회가 궁금합니다.

고운사는 그동안 본사와 말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운영해 왔기에 개인적인 소회보다는 대중의 화합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는 이 아픔을 수습하고 도량을 여법하게 복원해 나가는 데 모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Q 대웅전과 템플스테이관은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했고, 발 빠른 대처로 많은 성보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경과와 현재 복구 상황이 궁금합니다.

인연 따라 맡겨두면 되지 억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1년 전 난 불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시대에 맞는 건축 양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선불교가 왕성할 때는 건축이 단출했으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장식적으로 복잡해졌지요. 그것이 각 시대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첨단 재료와 공법이 뛰어난데도 여전히 옛 양식으로만 짓고 있습니다. '현대 양식'이 없는 셈이지요. 문화유산은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산이 아닌 건물들은 현대적 감각과 기능을 담아 변화를 주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것입니다.

Q 스님께서 제안하신 '전통 양식의 복원과 현대적 명상센터 건립'이 이 같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복원 원칙은 무엇입니까?

30~40년 전에는 온 가족이 한방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지만, 지금은 개별 생활 위주로 건축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절에 들어오는 이들도 그런 공간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100년 전의 불편한 공간에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지을 공간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옛 공양간 자리에는 현대적인 명상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세계기념물기금(World Monuments Fund)에서 고운사를 방문해 자연재해로 소멸되는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이들과 협력해 한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이지 않은, 누구나 편히 쉬며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 합니다.

Q 고운사의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대신 자연 복원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현실을 직시한 결과입니다. 의성 지역은 화산 지형이라 산 전체가 바윗덩어리입니다. 흙이 고작 10~20cm밖에 안 됩니다. 그 얕은 흙 위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경사가 급한 이곳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자원 낭비이자 환경 훼손입니다. 자연에 맡겨두면 환경에 맞게 나무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싫어하듯, 자연도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나니 산 능선을 따라 풀과 나무가 되살아나고 삵, 수달, 담비 같은 야생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길가 20m 정도만 벌목하고 있습니다. 벤 나무들은 건축용 규격에 맞게 재단해 열처리로 병해충 방제와 건조를 진행한 뒤, 사찰 복구 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고운사는 고금당선원과 화엄승가대학원을 통해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 전통의 계승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행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출가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옛 방식의 큰 선원만 고집할 수는 없기에, 부처님 당시처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려 합니다.

산불 상흔 딛고 사찰림 자연 복원
전통 잇되 현대적 건축 양식 모색
명상센터 · 신도시 포교당 건립 추진
정혜쌍수 전통 계승 속 변화 모색
미래세대 · 문화 포교로 공동체 복원

화엄승가대학원은 수행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학원장 등현 스님이 인도 등에서 공부하고 온 만큼, 부처님 수행 방식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원 수좌 스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강의를 듣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체계적인 교학 기반을 갖추고 정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통은 지키되 사찰마다 특색 있는 방식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Q 교구 운영과 지역 포교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말사들과는 합리적인 분담금 배정을 통해 포교와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임 교구신도회장이 취임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각종 복원은 불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안으로 안동 신도시(도청 인근)에 포교당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기관들에 맞는 신행 활동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포교에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량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오는 신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사찰음식체험관 운영과 최치원문화제 개최 등 문화 사업도 활발합니다. 불교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10월 셋째 주에 사찰음식 축제를 엽니다. 사찰음식 축제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말사 스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20여 가지 사찰음식을 나누며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치원문학관과 연계한 최치원문화제 역시 불교가 대중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Q 출가자 감소와 청소년 포교에 대한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고운청소년재단이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포교와 복지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탐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 많은 세상일수록 불교가 필요하지만, 그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자극적인 즐거움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를 넘어, 이들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Q 마지막으로 고운사를 응원해 주시는 불자들과 국민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운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산불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정성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정성이 크기에 사찰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리라 믿습니다. 서두르기보다 바르게, 정성을 다해 복원해 고운사가 다시금 모든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전각 뒤로 새롭게 풀이 자라나고 있는 고운사 전경. **사진 제공=그린피스**



산불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5일, 치유와 희망을 발원하는 고운사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올해 1월 30일 열린 '제83차 교구종회 및 교구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본말사 사부대중은 지역 포교를 위한 새로운 정진을 다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경내 현장을 오가느라 고무장화가 일상이 됐다. 대담 후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와 함께한 등운 스님.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